

2020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지는데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이곳 알로타우는 2월 들어 간간히 비가 내립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더위로 고생해서인지 비가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빨래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난번 편지에 올해 번역 위원회 의장이 새로 선출되었다고 했지요? 도미니크 의장으로 수고하게 되었는데 1월에 저희를 만나러 잠시 알로타우로 나와 새해 번역팀 계획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번역자들이 알로타우로 나오는 대신 저희가 마을에 가서 누가복음 초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 초역한 내용을 게리슨 (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번역된 내용이 적힌 공책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달랑 USB 드라이브만 왔습니다. 이건 뭐지? 했는데 저희 번역자들이 마을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번역한 내용을 USB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그때마다 노트북이 고장 나가거나 충전이 못 해서 사용할 수 없거나 하는 여러 이유로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USB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까지 왔구나... 장하다. 우리 번역팀!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경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잘 사용하다가도, 번역자들끼리 사용하는 동안 한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비비가니 활주로가 풀도 많이 자라고 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작년 11월 말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는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활주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경비행기를 타고 다시 마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왼쪽 사진은 지난 1월, 다와와 번역팀이 알로타우 센터에서 이사야서 자문위원 점검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저희가 꿈꾸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구요?

다와와 종족은 독일 선교사 부부의 도움을 받아 2003년에 신약을 봉헌했습니다. 그때 번역자로 함께 일한 사람이 지노(Jino) 인데 이후 독일 선교사 부부는 떠났지만, 지노의 인도로 구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이제 이사야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사야 말씀을 읽기도 쉽지 않지요? 그러나 번역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다와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 점검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사야서를 점검한 자문위원은 던칸(Duncan)입니다. 던칸은 자기 종족어인 우비르어로 신약을 번역하는 데 참여했고, 이후 꾸준히 훈련을 받아 파푸아뉴기니 현지인으로서 처음으로 자문위원이 된 분입니다. 30년 이상 성경 번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아마도 제일 바쁜 자문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번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그들 스스로 번역팀을 이끌어 가고, 이들이 번역한 말씀을 현지인 자문위원이 점검해 주며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는 모습.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다와와 번역팀의 좋은 본이 저희 카니누와 종족을 비롯해 많은 현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현지인 자문위원이 던칸을 포함해 두 사람뿐인데 더 많은 현지인 자문위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에 배편이나 인편으로 마을에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돕는 손길이 있도록,
- 2월 말 마을에 가면 누가복음 초역을 13장부터 점검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잘 수정되도록,
- 마을에서 번역자들과 함께 요한 1, 2, 3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신서를 번역하는 법을 가르칠 때 지혜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감사의 고백은 더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을 다녀와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샬롬.

2020년 2월 15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파푸아뉴기니 연락처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우편물 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우편번호) 211
 PAPUA NEW GUINEA